

-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성령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 오직 여호와와 그 성전에 계시니 온 땅은 그 앞에서 잠잠할지니라

주제:경제 제목 : 왜 부요해야 하는가? 성경: 누가복음
19장 12 -27절

- 12 이르시되 어떤 귀인이 왕위를 받아가지고 오려고 먼 나라로 갈 때에
- 13 그 종 열을 불러 은화 열 므나를 주며 이르되 내가 돌아올 때까지 장사하라 하니라
- 14 그런데 그 백성이 그를 미워하여 사자를 뒤로 보내어 이르되 우리는 이 사람이 우리의 왕 됄을 원하지 아니하나이다 하였더라
- 15 귀인이 왕위를 받아가지고 돌아와서 은화를 준 종들이 각각 어떻게 장사하였는지를 알고자 하여 그들을 부르니
- 16 그 첫째가 나아와 이르되 주인이여 당신의 한 므나로 열 므나를 남겼나이다
- 17 주인이 이르되 잘하였다 착한 종이어 네가 지극히 작은 것에 충성하였으니 열 고을 권세를 차지하라 하고
- 18 그 둘째가 와서 이르되 주인이여 당신의 한 므나로 다섯 므나를 만들었나이다
- 19 주인이 그에게도 이르되 너도 다섯 고을을 차지하라 하고
- 20 또 한 사람이 와서 이르되 주인이여 보소서 당신의 한 므나가 여기 있나이다 내가 수건으로 싸 두었었나이다
- 21 이는 당신이 엄한 사람인 것을 내가 무서워함이라 당신은 두지 않은 것을 취하고 심지 않은 것을 거두나이다
- 22 주인이 이르되 악한 종아 내가 네 말로 너를 심판하노니 너는 내가 두지 않은 것을 취하고 심지 않은 것을 거두는 엄한 사람인 줄로 알았느냐
- 23 그러면 어찌하여 내 돈을 은행에 맡기지 아니하였느냐 그리하였으면 내가 와서 그 이자와 함께 그 돈을 찾았으리라 하고
- 24 곁에 섰는 자들에게 이르되 그 한 므나를 빼앗아 열 므나 있는 자에게 주라 하니
- 25 그들이 이르되 주여 그에게 이미 열 므나가 있나이다

26 주인이 이르되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무릇 있는 자는 받겠고 없는 자는 그 있는 것도 빼앗기리라

27 그리고 내가 왕 됨을 원하지 아니하던 저 원수들을 이리로 끌어다가 내 앞에서 죽이라 하였느니라 (눅19:12-27)

-돈이 너무 중요한데, 사람들이 돈에 대해 너무 모른다.

-현재의 금융시스템은 약간의 문제가 있기는 하지만, 핵심적인 문제는 여전히 탐욕에 있다. ('시대정신'에 속은 사람들이 많다. EBS 다큐프라임 9-10월)

-현재의 금융시스템이 완벽하지 않다고 해도, 열심히 살고 나름대로 지혜를 모으면 충분히 그 불안정한 요소를 극복할 수 있다.

-돈은 곧 신용(믿음)이고, 신용에 의해서 만들어지고, 경제에 막대한 유익을 제공하고 있으며, 산업을 위해서 사용될 때 더욱 큰 유산을 남긴다.

-돈이 신용을 위해 사용되지 않고, 허랑방탕하고 거품을 위해서 사용되었다면 그런 사람들의 영향으로 사회 전반에 경제적 겨울이 닥치게 된다.

-지금은 경제적 겨울에 접어들었으니 신용관리에 더 철저해야 한다.

-열므나의 비유 설명.

.예수님 당시에는 왕위를 로마 황제로부터 수여받기 위해서 정치자금을 가지고 로마로 여행을 떠나야 했다.

.귀인이란 성공한 엘리트를 말한다. 한므나는 요즘 5-600만원 정도로 장사의 밑천이다. 주인은 종들에게 장사를 하라고 명령하였다.

.9명은 나름대로 재능을 발휘해서 열심히 장사를 하였다.

.제일 유능한 사람은 열배를 남겼다. 그의 힘은 열배가 커졌다. 그는 열 고을을 다스릴 수 있는 능력이 생긴 것이다.

.그러나 한 사람들은 주인을 미워하였고, 반역하는 일을 꾸몄다.

.그 사람은 장사하는데 신경쓰지 못하고 반역하는 일을 하는 자들에

의해 시험이 들었다. 그는 나름대로 정확하고 똑똑한 판단을 하고 있는 것 같지만, 결국 그는 패배자가 되고 만다.

-왜 파산하였는가?

-그는 주인의 신뢰를 저버렸다.

.주인은 그를 믿고 그에게 돈을 맡겼다. 그러나 그는 주인을 믿지 않았다. 주인은 악한 사람이라고 믿었다.

.더 나아가 주인은 왕위를 받아와서는 았된다고 생각하였다. 왜냐면 주인은 악한 사람이니까.

.그러나 주인은 악한 사람이 아니었다. 그는 성실한 사람이었다.

.이들은 로마의 황제에게 사람을 몰래 보내어 주인이 왕이 되지 않도록 해 달라는 청원을 하게 하였다.

.그러나 그 청원은 받아들여지지 아니하였다. 왜냐면 적은 돈을 가지고 가서 청원을 하였기 때문이다. 황제로서는 더 믿음직스러운 사람을 원하였고, 주인이 돈도 많고 더 믿음직스러웠기 때문에 주인에게 왕위를 주었다.

.주인을 신뢰하지 아니한 그 종은 다른 사람들에게 신뢰를 얻지 못하였다. 왜냐면 주인이 돌아오면 그는 더 이상 신뢰받지 못한 종이 되기 때문이다. 사람들은 그 종을 신뢰할 수 없었다.

.그 종은 장사에 신경을 쓰지 않았고, 사람들은 그의 물건을 팔아주지 아니하였다. 그는 겨우 몇 푼 벌지 못하였고, 그나마 황제에게 보내는 특사에게 비용을 지불하였기 때문에 결국 본전만 남게 되었다.

.그는 주인이 왕의 자격을 받고 돌아오자 거짓말을 할 수 밖에 없었으며, 거짓말을 하면서도 자기 속에 있는 악한 말을 감추지 못하고 자신이 더 정당한 사람으로 위장하였다.

-주인은 그 한 므나를 빼앗아 열므나 있는 사람에게 주었다. 왜냐면 열 므나를 가지고 있는 사람은 얼마 지나지 않아 그 한 므나를 다시 열므나로 만들 수 있는 사람이기 때문이다.

.그러면 그 열므나로 열 고을을 다스리는 사람은 더 많은 사람을 고용할 수 있게 되고 더 많은 가정을 안정스럽게 할 수 있는 사람이다.

- 모르는 사람은 주인이 불공평하다고 여길지 모른다. 그러나 주인의 입장에서는 신용이 있는 사람에게 돈을 맡겨서 더 많은 유익을 창출하고 그 유익으로 더 많은 사람을 풍요롭게 하기를 원하였다. 왜냐하면 나라를 운영해야 하기 때문이다.

.그리고 주인은 원래 모든 사람에게 한 므나를 주었다. 그가 만약 반역하지 아니한다면 주인은 실패한 사람에게서도 한 므나를 빼앗지 않았을 것이다. 주인은 일만 달란트 빚진 사람도 탕감하실 수 있는 사람이라는 것을 잊지 말아야 한다. 또는 너의 전 재산을 팔아서 가난한 사람에게 나눠 주라고 명령하시는 분이시기도 하다. 그것이 어떤 사람에게는 악하게 보일지 모르나, 주인은 나름대로의 계산과 계획이 있다는 것을 알아야 한다.

-하나님은 일하지 아니하는 사람을 악하게 여기신다.

-현재의 은행 시스템을 부정적으로 이해하고 돈은 빚으로 여기는 사람들이 있는데, 그것은 극단적인 표현이다. 돈은 빚이기 이전에 신용이다.

-돈은 소비하기에도 편리하지만(그것은 정당하게 자신이 일을 해서 벌어들인 돈으로 소비하는 것이다. 대출받은 것으로가 아닌.), 생산하기에 더 편리하다. 그러므로 돈을 대출받는 것은 생산에 대한 신용 때문에 대출받는 것이지, 소비하기 위해서 대출받는 것이 아니다.

-그러므로 대출받은 돈으로 생산활동 보다도 소비에 더 많이 사용하는 사람은 신용을 저버린 사람이다. 은행은 일하지 않고 생산활동을 하지 않는 사람에게 돈을 대출하지 않는다. 그러므로 신용도를 허위로 기재하는 행위 자체가 악하며, 그 사람은 돈을 갚을 수 없게 되고 그런 사람이 많을수록 그 사회는 경제공황의 위험이 많아진다.

-그러므로 은행 시스템의 허술함 때문에 경제위기가 닥치기 보다는 은행업무 자체가 신용인데, 신용에 기초하지 않는 모든 은행업무와 대출받아서 무분별하게 소비하고 투자하는 모든 사람들로 인해, 그리

고 악하게 소비하는 사람들이 많아짐으로 인해서 경제위기가 닥치는 것이다.

-만약 우리나라에 은행의 대출이 없었더라면 오늘날의 경제성장은 없었다. 은행의 대출이 아무리 많아도 부동산에 투기하고, 주식에만 투기하고, 생산활동에 전념하지 아니하면 은행은 망하게 된다.

-왜 우리는 부요해야 하는가?

-부요가 우리의 목적은 아니다. 다만 그것은 우리의 신용도를 표시하는 것이다. 신용도를 높여야 한다. 그러면 우리는 더 많은 산업을 일으키고 더 좋은 문명과 문화를 가꿀 수 있게 된다. 돈이 없는데 아니다. 돈은 은행에 가득하다. 다만 신용이 없는 것이다.

-오늘 우리는 내 말의 신용도부터 점검하자. 내 입에서 나온 말이 무산되지 않아야 한다.

-그러려면 먼저 하나님을 믿어야 한다. 하나님의 경제의 근원이다. 그리고 하나님께 순종하자. 하나님은 결코 식언치 않으신다.

-하나님은 우리가 거룩하기를 요구하신다. 제일 먼저 우리의 입술이 거룩하기를 원하신다. 그러면 우리는 신용을 잃지 않을 것이고, 신용을 쌓을 것이고, 부요하게 될 것이다. 아멘.

<찬양예배>

주제:목적 제목: 항상 행복할 수 있는 방법 말씀: 전도서 5장

1 너는 하나님의 집에 들어갈 때에 네 발을 삼갈지어다 가까이 하여 말씀을 듣는 것이 우매한 자들이 제물 드리는 것보다 나으니 그들은 악을 행하면서도 깨닫지 못함이니라

-발을 삼가라;하나님 앞에서 조심하며, 겸손하라. 하나님은 그래야 말씀 하신다. 건방진 자에게는 지혜의 말은 임하지 않는다.

2 너는 하나님 앞에서 함부로 입을 열지 말며 급한 마음으로 말을 내지 말라 하나님은 하늘에 계시고 너는 땅에 있음이니라 그런즉 마땅히 말을 적게 할 것이라

3 걱정이 많으면 꿈이 생기고 말이 많으면 우매한 자의 소리가 나타나느니라

4 네가 하나님께 서원하였거든 갚기를 더디게 하지 말라 하나님은 우매한 자들을 기뻐하지 아니하시나니 서원한 것을 갚으라

5 서원하고 갚지 아니하는 것보다 서원하지 아니하는 것이 더 나으니
-입술의 진실이 가장 기초.

6 네 입으로 네 육체가 범죄하게 하지 말라 천사 앞에서 내가 서원한 것이 실수라고 말하지 말라 어찌 하나님께서 네 목소리로 말미암아 진노하사 네 손으로 한 것을 멸하시게 하라

-입술이 잘못되면 손이 떨한다.

7 꿈이 많으면 헛된 일들이 많아지고 말이 많아도 그러하니 오직 너는 하나님을 경외할지니라

8 너는 어느 지방에서든지 빈민을 학대하는 것과 정의와 공의를 짓밟는 것을 볼지라도 그것을 이상히 여기지 말라 높은 자는 더 높은 자가 감찰하고 또 그들보다 더 높은 자들도 있음이니라

-정의감 때문에 자신의 사명을 망각하지 말라. 도울 수 있는 자만 도우라.

9 땅의 소산물은 모든 사람을 위하여 있으니 왕도 밭의 소산을 받느니라

10 은을 사랑하는 자는 은으로 만족하지 못하고 풍요를 사랑하는 자는 소득으로 만족하지 아니하나니 이것도 헛되도다

-행복은 그 소유에 있지 아니하다.

11 재산이 많아지면 먹는 자들도 많아지나니 그 소유주들은 눈으로 보는 것 외에 무엇이 유익하라

12 노동자는 먹는 것이 많든지 적든지 잠을 달게 자거니와 부자는 그 부요함 때문에 자지 못하느니라

-재산이 많으면 많은 사람들이 그 집에 깃든다.

13 내가 해 아래에서 큰 폐단 되는 일이 있는 것을 보았나니 곧 소유주가 재물을 자기에게 해가 되도록 소유하는 것이라

-재물을 해가 되도록 지키는 것이 어리석고 행복이 아니다.

14 그 재물이 재난을 당할 때 없어지나니 비록 아들은 낳았으나 그 손에 아무것도 없느니라

15 그가 모태에서 벌거벗고 나왔은즉 그가 나온 대로 돌아가고 수고하여 얻은 것을 아무것도 자기 손에 가지고 가지 못하리니

16 이것도 큰 불행이라 어떻게 왔든지 그대로 가리니 바람을 잡는 수고가 그에게 무엇이 유익하라

17 일평생을 어두운 데에서 먹으며 많은 근심과 질병과 분노가 그에게 있느니라

-근심, 질병, 분노, 원망, 스스로 어두운 곳에서 음식을 먹는 것이 불행이다. 이것 만큼은 스스로가 불러 들이는 것이다.

18 사람이 하나님께서 그에게 주신 바 그 일평생에 먹고 마시며 해 아래에서 하는 모든 수고 중에서 낙을 보는 것이 선하고 아름다움을 내가 보았나니 그것이 그의 몫이로다

-일평생 행복해야 한다.

-먹고 마시는 것이 행복이다.(잘 먹고, 잘 자고, 잘 누자)

-모든 수고 중에 낙을 보는 것이 행복이다.

19 또한 어떤 사람에게든지 하나님이 재물과 부요를 그에게 주사 능히 누리게 하시며 제 몫을 받아 수고함으로 즐거워하게 하신 것은 하나님의 선

물이라

- 재물과 부요를 누리는 것이 행복이다.
- 누구에게나 그렇게 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뜻.
- 수고함으로 즐거워하게 하셨으니, 수고하는 것을 잊지 말라.

20 그는 자기의 생명의 날을 깊이 생각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하나님이 그의 마음에 기뻐하는 것으로 응답하심이니라 (전5:1-20)

- 생명의 날. 자기의 연수를 계산하는 것에 착념치 않는다. 죽는 것을 걱정하지 않는 자가 행복.
- 하나님은 응답하시는 분.